

가자! 클래식... “으랏차차~ 광주FC”

K리그 경남과 승강 PO 1차전 3-1 승리... 내일 최종전

이기거나 비기면 무조건 승격... 지더라도 경우의 수 따져

간절함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광주 FC가 무서운 상승세로 클래식 복귀에 마침표를 찍는다.

광주 FC가 6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2014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른다. 시즌 최종전이 될 이날, 광주는 클래식 복귀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 광주는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승강플레이오프 승리팀은 ▲1·2차전 합산 승점 ▲득실차 ▲원정다득점 ▲연장전 ▲승부차기 순으로 결정된다. 광주가 2차전에서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클래식 복귀를 축하하는 삼매인을 터트릴 수 있다. 지더라도 득실차·원정 다득점을 계산해 승자가 될 수 있다. 1차전에서 두 골을 더 넣은 광주는 스코어가 0-1이나 4-5나 상관없이 1점차로 질 경우에 무조건 승자가 된다.

2점차로 지는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0-2의 경우 광주는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첼린지 리그에 잔류해야 한다. 1-3으로 질 경우에는 전·후반 15분씩 진행되는 연장전을 통해 승부를 가려야 한다. 두 골 이상을 넣고 2점차로 질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에서 앞선 광주가 승리한다. 3골차 이상으로 지면 클래식 리그의 꿈은 무산된다.

1차전 승자인 남기일 감독대행은 “방심은 우리에게 사치”라며 “무조건 승리”로 기본 흥게 클래식 리그 복귀를 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의 상승세와 1차전 플레이를 본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광주는 1차전에서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경남을 압도했다. 과감한 슈팅과 재치있는 힐 패스 등 자신감을 품은 선수들은 간절하고 거침없는 플레이로 관중석을 때려서줬다.

전반 20분 팽팽하던 승부의 균형을 깬 선제공격도 여명의 패스에 이은 조용태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에서 나왔다. 1-1로 맞선 후반 3분에는 지열

■ 광주 FC 승격 경우의 수

무득점	1득점	2득점
0-0(승격)	1-2(승격)	2-3(승격)
0-1(승격)	1-3(연장전)	2-4(승격)
0-2(잔류)	1-4(잔류)	2-5(잔류)

- 2득점 이상 2점차 패배=승격
- 3골차 이상 패배=잔류

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디에고가 거침없는 질주로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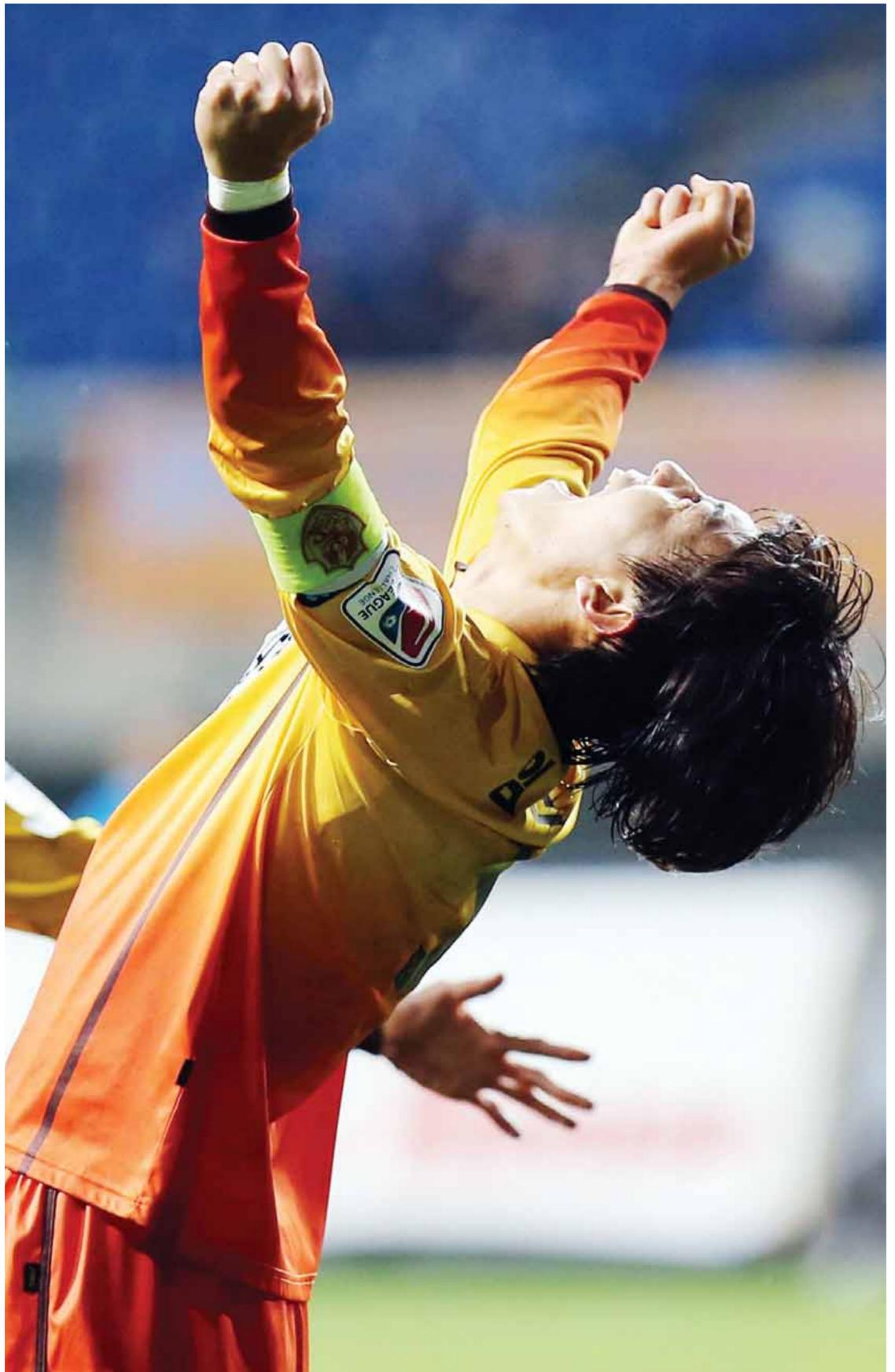
경남의 추격 의지를 꺾은 추가골에도 플레이오프에서 골대 불운에 울었던 임선영의 자신감 있는 슈팅이 있었다. 임선영은 후반 40분 이종민이 광주진영에서 길게 넘겨준 공을 받아 빠르게 침투한 뒤 오른쪽 슈팅을 선보였다. 상대 발끝을 거친 공은 그대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공격의 주인공 조용태는 “간절했던 것 같다. 경남에서 좋은 추억보다는 안 좋은 추억도 있고 평소보다 (각오가) 남다르기는 했다. 수원에서 조커로 뛰다가 경기를 많이 뛰고 싶어서 경남으로 옮겼는데 1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용병선수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 감독대행이 말한 승리의 비결에도 ‘간절함’이 있다.

남 감독대행은 “상승세의 이유는 간단하다. 2부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실움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1부로 올라가고 싶다는 간절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결과로 이어졌다. 역전패도 많이 당했고, 많은 일을 겪었다.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많이 배우고 강해지려고 했다”며 “방심, 안심이 없다. 1부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겠다. 지키려는 축구는 잘 안 맞는다. 2차전도 승리를 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광주FC와 경남FC의 경기에서 광주 임선영이 후반에서 세번째 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단주 빠진 시민 구단

윤장현 시장, 광주FC 축구경기 한번도 참석 안해

구단주 빠진 시민 구단 광주의 축구잔치였다.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K리그 ‘겨울잔치’가 벌어졌다. 첼린지 리그를 4위로 마감했던 광주 FC가 강원 FC와 안산 경찰청을 잇달아 격파하면서 승강플레이오프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 클래식 리그의 경남 FC와 벌인 승부에서 광주 선수들은 3-1의 승리를 연출하면서 월드컵경기장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었다.

적장이었던 경남의 브랑코 바비치 감독대행조차 “어려운 경기였다. 우리의 간절함이 달랐다. 광주에 축하인사를 해주고 싶다. 좋은 팀이었다”고 밝힐 정도로 광주의 수준 높은 축구가 그라운드를 수놓았다.

오후 7시 경기가 시작된 이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날씨 속에서도 3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광장을 연호하며 함께 열광했다.

제2의 기성용을 꿈꾸는 지역 축구 유망주들도 경기장에 총출동해 축구 축제를 즐겼다. 하지만 구단주인 윤장현 시장은 광주의 잔치에 함께 하지 않았다. 구단주로 역할을 맡은 뒤 한 번도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구단주는 팀의 운명이 걸린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광주시관계자는 “지역희망박람회 일정 뒤 만찬에 참석하시느라 시간이 없었다. 승강플레이오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스케줄이 잡힌 것이다”고 해명했다.

광주는 열악한 축구 환경 속에서도 고종수·윤정환·기성용 등 쟁쟁한 스타들이 탄생한 곳이다. 광주 FC를 통해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도약한 이들도 있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박기동·김동삼·이승기 등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특히 광주출신의 이승기는 고향팀을 발판 삼아 전북의 주전 선수로 자리잡으며 신인왕에 이어 올 시즌 베스트 11의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윤장현 시장 당선 뒤 한때 ‘광주 해체론’까지 나왔지만 광주 선수들은 기적 같은 행보를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

오즘 성남 FC의 이재명 구단주가 연일 K리그의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다. 성남 시민의 팀을 보 호하고 K리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금기이기도 했던 심판관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 부조리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시장과는 다른 광주 구단주 윤장현 시장의 행보가 아쉽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정 전술·조직력·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슈틸리케 감독 축구협 기술세미나서 강연

우리 슈틸리케(독일)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현대 축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유연성’을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4일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기술 콘퍼런스 & 축구과학회’에 참석해 ‘현대축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덕목’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판단 실수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해하기 쉽도록 ‘S.O.S.’를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지목했다.

첫 번째 ‘S’는 ‘시스템(System)’으로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특정 전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O’는 ‘조직(Organization)’을 의미하는데 조직력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슈틸리케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1981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과 맞붙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내가 중앙 수비수를 맡았는데 상대팀에서는 나를 측면으로 밀어내려고 중앙 공격수가 계속 오른쪽을 공략했다. 0-0이던 하프타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감독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0-1로 졌다”고 아쉬워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10월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예로 들며 “경기 시작은 4-2-3-1로 했지만 수시로 4-3-3, 4-2-4로 포메이션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최전방 공격수와 최후방 수비수의 간격 유지만 된다면 대형 자체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S’는 ‘계획(Scheme)’을 가리키는데 이는 훈련 등을 너무 계획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물론 계획이 전혀 없어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계획대로만 꾸려간다면 단조로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S.O.S.’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게 하며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선수를 우수한 부분이 조직력과 같은 규율”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조직력 위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깨고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과 혁신을 앞세워야 상황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